



✓ 진로교육 바로 알기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도와주세요!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에 맞춰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매번 학습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공부법을 바로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대입에서 수시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체험활동, 봉사활동, 교내외활동’ 등 비교과 부분이 중요해지면서 ‘자기주도 학습’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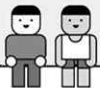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자기효능감을 가지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효능감이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자녀가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께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자녀 본인이 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돌아쳐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부모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지 학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학이나 직업 설정 등 단계별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내가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자존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 고등학교편」)

✓ 진로상담, 똑..똑..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Q 책을 좋아하는 고1 딸이 문헌정보학과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에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서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A 문헌정보학과는 과거에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이 개명된 학과이다 보니,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를 사서로만 한정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서 이외에도 정보기술 전문가, 정보컨설팅 전문가, 인터넷정보 전문가, 웹정보 전문가, 정보 전문기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 정보기술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시스템 설계자·분석가,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 정보컨설팅 전문가: 정보컨설턴트, 정보브로커, 정보코디네이터 등
- 인터넷정보 전문가: 정보검색사, 인터넷데이터베이스관리자, 전자출판전문가 등
- 웹정보 전문가: 웹디자인, 웹목록자, 웹분류자, 콘텐츠개발자 등
- 정보 전문기자: 신문·방송 및 언론 정보센터 등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관리 영역까지 다루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녀와 함께 관련 직업을 보다 폭넓게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한국 사람이 떡을 안 만들면 누가 만들겠어요” - 신용일(병과점 ‘합’ 대표)

■ 운동, 패션, 웹디자인 등 다양한 흥미를 탐색해보고 마침내 ‘요리’라는 꿈을 찾았어요

신 대표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는데, 막상 체대에 들어가 보니 강도 높은 훈련 생활이 잘 맞지 않았다. 그 후로는 패션에 흥미가 생겨 졸업 후 스포츠 의류 관련 대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시스템이 맞지 않아 곧 퇴사한 후, 웹디자인 회사를 창업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6개월 만에 문을 닫기도 했다. 그러던 중 꿈을 찾는 계기가 된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신 대표는 종종 음식을 만들어 지인들과 나눠 먹곤 했는데, 그걸 기억하던 지인이 요리 관련 TV프로그램에 그를 섭외한 것이다. 그 계기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던 요리라는 재능을 다시 찾게 되었다.

■ 떡의 매력을 알게 되고, 디저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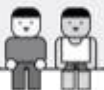
요리학원에 등록해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던 중, 그는 한 떡집에서 파는 예쁜 떡을 보고 반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단순히 떡을 만드는 단계에서 벗어나, 떡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방법을 배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자, 그는 프랑스로의 유학을 결심한다. 떡이 한국의 디저트라고 한다면 디저트의 나라,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프랑스의 르노트르 학교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유학 당시 아테네올림픽 케이터링의 한식 요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한식당의 부주방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한국대사관장의 요리사가 되는 결실을 이루기도 했다.

■ 10년 동안 그려왔던 떡집을 완성했어요

신 대표는 요리에 대한 꿈을 품은 후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한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경력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최종적인 꿈은 프랑스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인 ‘떡집’을 차리는 것이었다. 결국 그 꿈을 실천한 그는 지금 떡집 ‘합’을 운영하며, 빵, 케이크, 과자, 커피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방식을 최대한 살려 만든 증편, 주악, 인절미, 약과를 판매하고 있다. 신 대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언젠가 꼭 이루게 될 것이라며, 꿈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한식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려는 포부를 품고 앞으로 더욱 나아가고 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창업 분야)

✓ 진로소식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8월 방학 동안 어떤 내용이 방송되었을까요? 다시 듣고 싶거나 놓친 방송을 팟빵 또는 ‘맘에쏙진로’ 앱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진로레시피 8월 주제>

8월 3일(월)	수능100일특집> 기적은 있습니다! (조문기 선생님, 신영규 전문원(대학교육협의회))
8월 5일(수)	수능100일특집> 기출문제보다 중요한 것들! (조문기 선생님, 신영규 전문원(대학교육협의회))
8월 10일(월)	워든지 질릴 때까지 해보자!(『사표사용설명서』의 황진규 작가)
8월 12일(수)	테마여행? 워든지 좋다!(『사표사용설명서』의 황진규 작가)
8월 17일(월)	조금 없어도, 조금 늦어도 괜찮아!(고원형(아름다운배움 대표))
8월 19일(수)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고원형(아름다운배움 대표))
8월 24일(월)	자유학기제특집-동영상> 학부모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얼마나 알고 계세요?
8월 26일(수)	자유학기제특집-동영상> 수업만족도 70%, 가장 걱정되는 것들(학습과 학원활용법)

<진로레시피 소개 및 안내>

내용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의 진로, 진학, 직업 관련 정보와 유명 전문가 및 직업인과의 인터뷰 제공
방송 기간	- 05월 11일 ~ 12월 31일 -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청취 방법	- PC : 팟빵 웹사이트 → ‘진로레시피’ 검색 - 스마트폰 : 팟빵 앱 → ‘진로레시피’ 검색 맘에쏙 진로 앱 → ‘진로레시피’ 검색 e-진로채널 앱 → ‘진로레시피’ 검색
QR 코드	 팟빵 앱 다운로드 <p>※ QR코드를 통해 팟빵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p>